

# NYPI

## 청소년정책

### 리포트

##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

❖ Vol.29 \_ 2012. 05 | 안선영 부연구위원



# NYPI YOUTH REPORT

VOL.29\_2012.05 [www.nypi.re.kr](http://www.nypi.re.kr)

**발행일** 2012. 05. 29 **발행인** 이재연 **발행처**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**주 소**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/10층 **전화** 2188-8860 **팩스** 2188-8869

**제 작** 계문사

#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

##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

◆ Vol.29 \_ 2012. 05 | 안선영 부연구위원

### CONTENTS ◆

- I. 우리나라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실태 \_ 05
- II. 취약·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 진입여건 악화 \_ 07
- III. 청년층의 효율적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안 \_ 10

#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

## ■ 요약

-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취업, 결혼, 분가,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근본 원인임.
-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집중적인 투자를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고, 결혼 및 출산,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이르는 단선적인 성인기 이행 경로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.
-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상황과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는 여성들이 많고,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.
- 성인기 이행 방식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며, 취약위계층 청년들의 불안정한 성인기 이행은 부모세대의 취약위기 상황이 대물림되는 양상으로 나타남.
- 청년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, 청년 주거지원 정책, 일가정 양립 정책, 취약위계층 청년 지원 정책을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 지원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.

## I. 우리나라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실태

### ■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시기 지연, 불안정화 양상 심화

○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체,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청년 노동력의 유희화, 부모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지속, 결혼의 지연과 저출산 등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 지연과 불안정 양상 가속

▶ 청년고용율은 지속적 감소 추세

※ 청년고용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은 취업, 결혼, 분가, 출산과 같은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▶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어 있음.

○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상황과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은 성인기 이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

▶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청년들에게 결혼과 커리어 개발 욕구는 갈등 양상으로 나타남.

※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는 여성들이 많고,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(장미혜 외, 2011).

※ 한편, 결혼을 통해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남성청년들에게 결혼과 커리어 개발 욕구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며 충돌을 일으키지 않음.

○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데 비해 주거비는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음.

▶ 한국의 주거비는 다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하였음.

※ 서울의 소비자물가가 1963년에 비해 2007년 43배, 실질소득이 15배 상승한 것에 비해, 땅값은 무려 1176배 상승하였음(손낙구, 2008).

▶ 높은 주거비는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※ 대학과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은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청년 세대로부터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짐.

## ■ 청년층 성인기 이행 양상의 계층간 격차 증가

○ 자녀의 대학교육, 결혼, 주택구입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풍토 만연(〈표 1〉 참조)

▶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의 의존적 태도를 낳게 되고 이는 자립과 진로결정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.

▶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육, 결혼, 주택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. 〈그림 1〉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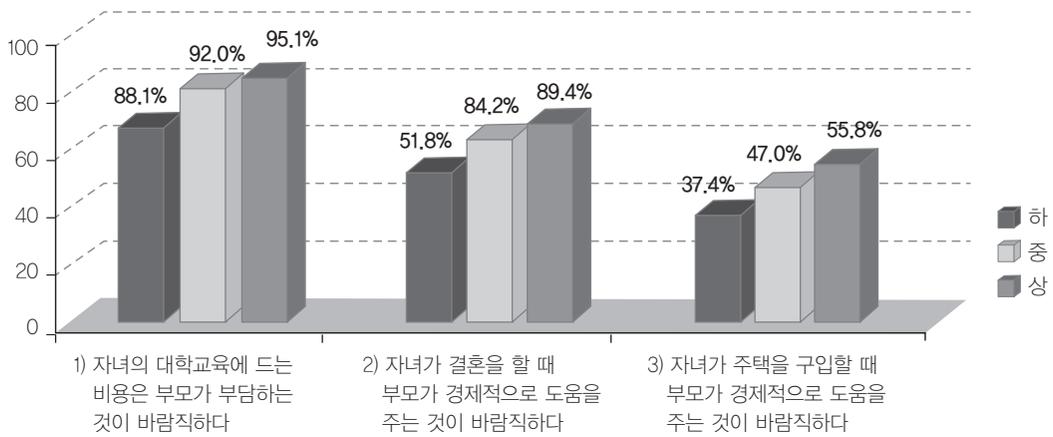
【표 1】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청년 - 부모세대 인식

(단위 : %)

구분	청년세대	부모세대
자녀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	80.6	84.2
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	64.0	65.3
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	49.0	51.2

※ '동의하다'와 '매우 동의한다' 응답률을 합친 비율.

※ 출처 : 안선영 외(2011).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.



※ '동의하다'와 '매우 동의한다' 응답률을 합친 비율.  
 ※ 출처: 안선영 외(2011).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.

【그림 1】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: 경제수준별 비교

## II. 취약·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 진입여건 악화

### ■ 취약계층 청년들의 불리한 가정 환경 효과

#### ○ 가족해체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에 노출

▶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부모의 제한된 자원과 지지 등 부정적인 가족적 맥락으로 인해 부모의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높음.

※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.

※ 이러한 가족의 특징은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및 미래 가족관, 결혼 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

※ 부모의 갈등에 편입 및 노출되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음주, 흡연, 성관계, 동거 등의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.

#### ○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한 태도는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로 대물림

- ▶ 취약위גיע층 보호자의 경우 열악한 경제적 여건, 가족관계의 파탄, 낮은 학력, 저임금·장시간노동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.
  - ▶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며, 이는 취약위기 상황의 대물림으로 이어짐.
- 부모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는 정신적 지지나 성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성인들을 통해 대안적으로 제공받기도 함.
- ▶ 하지만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관 및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(은기수 외, 2011).

## ■ 취약계층 청년들의 불리한 교육배경 효과

- 대부분의 취약·위גיע층의 청년들은 학교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.
- ▶ 대학진학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취약위גיע층 학생들의 모습은 부적응이나 일탈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.
    - ※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나 생계를 위해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음.
    - ※ 취업이나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(은기수 외, 2011).
  - ▶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.

○ 취약위גיע층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동기가 낮음

- ▶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경우 대학 교육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으며,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▶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이 대학교육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이어지기도 함.  
※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학업이나 대학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고, 선후배나 동기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.

■ 취약계층 청년들의 불리한 노동 환경

○ 취약위גיע층의 청년들은 중산층 청년들과는 상이한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며,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노동경험임.

- ▶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러 경험하게 되는 생계형 노동을 이른 나이부터 접하게 됨.  
※노동과 학업을 둘 다 조절해야 하는 이중적 구속과 역할에 빠지게 되고,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어지는 유예기, 준비기는 단축됨.  
※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한 성인기 이행 준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.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의 흔적이 남지 않는 이른바 ‘유령노동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.

- ▶ ‘유령노동’은 저연령과 저학력, 저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는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킴.
- ▶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랜 시간 임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심한 박탈감과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함.

### Ⅲ. 청년층의 효율적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안

#### ■ 청년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보장할 필요

-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음.
- 한국의 주택정책은 혈연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미혼청년들이나 기혼가구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임.
  - ▶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는 현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필요
    - ※안정적 주거확보가 결혼과 출산에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1인가구나 무자녀가구에게 불리한 주거 정책은 오히려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   - ※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대상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#### ■ 취약·위גיע층 청년들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

- 취약위גיע층 가족지원 정책의 확대
  - ▶ 현재의 취약위גיע층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들은 한부모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    - ※하지만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이 반드시 한부모 가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.
  - ▶ 현재의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맞춘 가족관련 정책들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취약위גיע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.

## ○ 가정 기능 회복 지원 정책

- ▶ 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
  - ※ 취약위기계층 청년 가정의 부모들이 '부모교육'에 참여할 경우 수급자격 유지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일정한 수준의 현물로 참석수당을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.

## ○ 심리·정서적 지원 정책

- ▶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위기계층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
- ▶ 또래집단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·지원 프로그램 필요
- ▶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건강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
  - ※ 결혼 및 가족 형성에 있어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.

## ○ 취약위기계층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정책

- ▶ 최저 임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·감독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
- ▶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노동담당부서와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
- ▶ 노동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의 강화 필요
  - ※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홍보 강화 필요

## ■ 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원정책 지속추진

### ○ 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

#### ▶ 대학의 취업 책임 강화 필요

※ '대학취업역량 인증제'를 강화하여 대학이 취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

※ 대학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노력 필요

### ○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

#### ▶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

#### ▶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

※ 일자리 창출 실적 공시제 강화

#### ▶ 고용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관행 시정

## ■ 건강한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문화 구축

### ○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교육 강화

#### ▶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통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창출 필요

※ 생명과 가정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관련 교육 강화

### ○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을 제안

#### ▶ 자녀의 대학교육, 결혼, 주택구입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 문화의 변화 필요

- ▶ 자원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줄이고, 과잉적인 부모의 보호와 지원으로 인해 또 다른 차원에서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데 모두 필요

## 참고문헌

---

- 손낙구(2008). 부동산 계급사회. 후마니타스.
- 안선영 · 김희진 · 박현준(2011).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. 서울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.
- 안선영 · Cuervo & Wyn (2010).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. 서울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.
- 은기수 · 박건 · 권영인 · 정수남(2011).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. 서울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.
- 이병희 · 장지연 · 윤자영 · 성재민 · 안선영(2010).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실태. 서울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.
- 장미혜 · 정해숙 · 마경희 · 김여진(2011).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. 서울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.
- Osgood, D. W., Foster, E. M., Flanagan, C., & Ruth, G. R. (Eds.), (2005). *On your own without a net: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*. Chicago: University of Chicago Press.
- Swartz, T. T. (2008).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: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. In J. T. Mortimer (Ed.), *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.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, Vol. 119*, pp. 11-24.
-

# 2012 기본연구과제

- 아동·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 I
-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
- 취약계층아동·청소년종단연구 III
-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III
- 청소년 미혼부모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I
-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
-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
- 「창의적 체험활동」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I
- 후기청소년세대 생활·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
- 주5일 수업제와 청소년활동 연계 방안 연구
-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정책연구
- 청소년도덕성발달검사도구표준화연구 II
-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
-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: 한·중·일·미·핀·사
- 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
- 아동·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
- 한국 아동·청소년 패널조사 III

